

본 글로벌 기업의 해외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민호** · 김정순*** · 김태영****

요 약

본 연구는 KOSDAQ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 중 해외매출액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으로써 해외활동을 설립 후 3년 이내 시작한 기업을 본글로벌(Born Global)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해외 매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이들 기업의 해외매출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내부요인은 연구개발 비용의 비중과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보유정도가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프로세스에서 IT기술 활용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연구개발 비중·비즈니스 네트워크변수는 IT를 활용했을 때 기업의 해외매출액 비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Born Global 기업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동안 지식기반 산업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온 Born Global 기업에 대한 연구를 기업의 업종을 확대시켜 연구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Born Global 기업에 대한 접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본 글로벌 기업, 해외 매출, IT 조절효과

* 논문접수일 2010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3일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활동은 자사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의 감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활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단일 시장으로 진출한 후 자사의 제품이 성공하였을 경우 2차의 복수시장으로 진출하는 점진적 단계를 보인다. 이러한 점진적 국제화는 Vernon(1996)의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이나 Johanson & Vahlne(1997)의 이론에 설명된다.

그러나 기업의 설립초기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Oviatt & McDougall(1994)는 “본 글로벌(Born-Global)” 혹은 “국제 신 벤처”으로 정의하며 기업이 단계적 국제화 과정을 거친다는 기존의 이론과 상반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Born Global 기업의 등장 배경으로 첫째, 세계적으로 비슷해진 소비패턴 둘째, 연구개발의 증가 셋째, 정보통신의 발달 넷째, 운송수단의 발달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적인 소비패턴의 유사성을 이끌어 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으며,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 시장 혹은 해외 단일시장으로 기업의 수익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Born Global 기업의 등장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Born Global의 특성이 나타나는 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IT와 같은 기술 산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산업구분 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존 Born Global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식기반 산업을 토대로 설립된 기업에 치중하여 분석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업종보다는 국제화 활동과 해외 매출액의 차지 비중을 초점을 두고 Born Global 기업을 이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점진적 국제화 모델에서 변형된 신 국제화 모델을 이해하기 위하여 Born Global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이들 기업의 해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상기와 같은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구성된다.

첫째, Born Global 기업에 대하여 기존 문헌을 토대로 정의를 내리고 둘째, 관련 선행문헌을 살펴본다. 셋째, Born Global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해외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나아가 기업의 IT 활용이 각각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강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더미조정 회귀분석(dummy moderate regression)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설립초기에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요인이 강화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벤처기업의 특징이나 기술 집약적 산업의 해외활동으로 설명되었던 기업의 현상을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Born

Global 기업으로 파악하여 좀 더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Born Global 개념 및 특징

기업의 새로운 국제화 현상에 관하여 Hedlund & Kverneland(1985)는 단계모형의 국제화 단계를 생략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최초로 언급한 후 “국제뉴벤처기업(INVs)”을 설명하였다. 즉, Born Global 기업은 설립 직후 해외에 신속하게 진출을 시작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의 “국제신생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s: Oviatt & McDougall, 1994)” “글로벌 창업기업(Global Start-Ups: Jolly et al., 1992)”등 다양한 용어로 불렸으며,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태생적국제화 기업(Born Global Firms)이 있다(Rennie,1993; Knight & Cavusgil, 1996; Madsen & Servais. 1997; Moen, 2002).

기업의 Born Global 현상은 기업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자산(firm specific asset)에 근거하여 발생한다는 자원기반관점이론으로 설명된다. 자원기반관점 이론(Recourse-Based View Theory)이란 왜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성과가 다양한지를 설명하는 기본이론중 하나로, 자원은 광범위하게 자산, 인프라, 숙련기술 등으로 정의된다. 자원관점 이론에서 기업의 특화된 자원은 서로 보완적이며, 특화된 자원과 조직의 능력을 독특하게 조화시켜 기업의 가치 창출을 이끌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원관점이론은 조직의 가치창출을 이끌 수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독특하게 융화시키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나아가 자원기반이론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의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경영전략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Porter & Millier, 1985;Rumelt et al.,1991).

세계화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구개발(R&D)투자의 복잡성과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규모만으로는 그 수익을 충당하기 힘들다(Kogut, 1991; Korbin, 1991; Kodama, 1992). 그러므로 연구개발(R&D)의 투자가 높은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도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들은 자신들의 R&D역량을 통해 꾸준히 내부 개발을 추구하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기업들과의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술 집약적 산업에 속한 벤처 기업은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설립초기부터 신속하게 국제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기 Born Global 기업들은 지식기반산업에 기반을 둔 IT 계열 회사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과 같이 비 지식 기반 산업에서도 초기 해외진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기존 산업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자사만의 기술을 가지고 진출하기 때문에 Born Global 기업과 관련된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Born Global 기업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모방 불가능한 자사만의 독특한 자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특성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Born Global 기업에 관련된 정의는 연구자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진출시기와 해외매출액 비중의 정도로 정의된다.

Knight et al.(2004)는 Born Global에 속하는 기업은 기업의 역사가 20년 이하인 기업으로 해외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25%를 차지하고 설립이후 3년 이내 해외활동을 시작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Rasmussen et al.(2001)은 본 글로벌 기업을 적어도 1976년 이전에 설립하여 국제 활동은 설립한 지 3년 이내 시작하고 해외 판매는 총 판매액에서 적어도 2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Gabriellsson & Kirpalani(2004)은 1995년 이전에 설립되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해외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이 Born Global 개념에서 진출 시기를 3년 이내로 정의한 것과 달리 좀 더 진출 시기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Knight and Cavusgil(2004)는 사업초기부터 지식기반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나라에 일찍 진출하여 해외시장에서 매출성과를 올림으로써 뛰어난 국제경영의 성과를 모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Andersson & Evangelista(2006)은 기업의 설립 후 6~8년 이내에 국제화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Zahra et al.(2000)은 설립 후 적어도 6년 이내에 해외에 진출한 기업으로, Laanti et al.(2007) 좀 더 광범위하게 기업의 설립 초기에 해외에 진입한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지용희·김정포(2005)는 Born Global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1990년대 설립하여 해외 진출 시기는 창업한 이후로 9년 이내 이루어진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문헌을 토대로 Born Global 기업에 대하여 정의하면 “회사 제품에 관계없이 1990년대 출현한 기업으로 그들의 모든 해외 국제화 활동(수출, 라이선스, 해외직접투자, 수입 등)*이 설립 후 3년 이내 시작된 기업으로 이러한 국제화 활동이 매출액에서 8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 관련 기존 연구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원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활동 중 수입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초기 Born Global 기업에 관련된 연구는 개념을 정의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Born Global 기업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최고경영진의 해외지향성과 경험에 정신과 경험에 집중되어 있었으나(Laanti et al.,2007) 최근의 문헌을 살펴보면 Born Global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기업의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에 집중하여 Born Global 기업의 생성 원인 및 성과의 중요 요인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Gabrielsson & Kirpalani,2004;Andersson & Evangelista,2006).

먼저 Moen(2002)은 기존에 점진적인 국제화를 이룬 기업과 Born Global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적 우위’ ‘수출전략’ ‘세계화 지향’ ‘환경적 상황’과 같은 요인들 중 Born Global 기업들이 기존의 기업들보다 경쟁적 우위 부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Born Global 기업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변수는 최고경영진의 글로벌 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hetty & Campbell-Hunt(2004)은 국제화 접근의 전략을 전통적인 방법과 Born Global 기업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16개 기업을 ①국제시장점유율, ②시장진입과 확장 방법, ③생산제품 범위, ④제품의 선두적 위치, ⑤ 제품 제조방법, ⑥마케팅, ⑦창립자의 기업 창립 이전 국제적 경험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분석한 결과 각 기업들은 크게 다른 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Born Global 기업이 어떤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소규모 기업의 국제화라고 주장하였다.

Andersson & Evangelista(2006)은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Born Global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의 행동과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진의 수’ ‘국제경험과 산업경험’ ‘글로벌 마인드’ ‘개인적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나라사이에서 각 요인들의 별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기업가들의 최고 경영진 숫자와 개인적 네트워크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Gabrielsson & Kirpalani(2004)는 Born Global 기업들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국제화를 실현시킨 요인으로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과 시스템 통합, 본 글로벌 제품·서비스를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분배, 네트워크, 인터넷 이용을 제시하였다.

Laanti et al.(2007)은 B2B Born Global 기업들의 빠른 세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핀란드 무선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케이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계화 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창립자·경영자의 네트워크, 경험, 혁신성, 능력, 기술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 즉, Born Global 기업의 특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 때, 그 기술의 혁신성에 의해서 기존의 점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 지용희·김정포(2005)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시기 결정요인

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자의 해외경험과 기술혁신정도 제품과 서비스의 독특성 기업의부 네트워크 활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벤처기업 일수록 창업 이후 신속한 해외 진출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조영곤 외 2인(2007)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 분야의 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글로벌 지향성, 기술 능력, 네트워크 역량, 국제경영관리의 경험, 효율적인 마케팅전략, 특유의 조직관리 매커니즘으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배준우와 배종태(2003)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 요인과 과정, 결과를 밝히는 탐색적 사례 연구에서 국제화 신생 벤처 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국제 경험이나 국제 네트워크가 가장 영향이 많은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국제화 동기는 시장 확보가 가장 주요 원인이었으며, 국제화 성과는 외부환경 특성에 적절한 국제화 방식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채택하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김형준과 정덕화(2007)는 벤처기업 중 Born Global에 속하는 기업과 non Born Global인 기업들이 기업역량, 마케팅 전략의 차이,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에서, Born Global 벤처 기업은 non Born Global 기업에 비하여 기업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및 해외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두 기업군이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는 성장성과 시장 성과에서는 Born-Global 벤처가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night and Cavusgil(2009)는 Born Global 기업의 촉진 요인으로서 시장의 글로벌화,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생산 기술의 발달, 틈새시장,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요인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속도와 해외 매출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부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혁신으로 간주되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사이에 매출액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PRO = a + \beta_1 \cdot SS + \beta_2 \cdot SIZE + \beta_3 \cdot CEO + \beta_4 \cdot NET + \beta_5 \cdot R\&D + dummy_n + \varepsilon$$

PRO: 매출액에서 해외매출액 비율
SS : 특정인과 주식소유정도
SIZE: 기업의 크기
CEO: 최고경영진의 해외경험정도
NET: 비즈니스 네트워크 정도
R&D: 전체 매출액에서 연구개발 투자 비율
dummy: IT활용의 유무

본 연구모형을 통하여, Born Global 기업의 내부요인(특정인과 주식소유정도, 비즈니스 해외네트워크, 연구개발 비용, 최고경영진의 해외경험정도·기업의 크기)이 기업의 해외매출액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 나아가 기업의 특성요인이 IT활용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절회귀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

2. 가설설정

1) 연구개발(R&D)

신생 기업은 경쟁우위를 획득하여 보다 유리한 경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특히 혁신을 강조한다. 기업이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이는 기업의 기술적인 지식기반과 신기술의 채택의 역량을 구축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게 된다(Cohen and Levinthal, 1990). 즉, 기술 혁신 정도가 높을수록 국제화의 정도가 더욱 확대 된다고 볼 수 있다. Bloodgood et al.(1996)과 McGuinness & Little(1981)의 연구에 따르면, R&D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기업이 보유하는 특허 등의 우위요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수출활동 등 해외진출을 가속화시켜준다고 하였다.

Sharader(2001)는 신생 벤처기업의 경쟁우위는 혁신적이고 차별화가 높은 제품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경쟁우위는 대체로 해당 신생벤처기업의 기술적 혁신에서 파생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신생기업이 창업 초기에 해외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는 이유는, 기술적 경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높은 R&D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보다 넓은 해외시장지역으로 신속하게 진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orn Global 기업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타사와 비교하여 경쟁우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R&D투자에 집중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해외매출액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기업의 연구개발은 기업의 해외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비즈니스 네트워크(Business Network)

Born Global 기업이 국제화를 시도할때 여러 가지 태생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신생기업으로서의 불리함'과 '규모의 불리함'이 있다.

신생기업으로서의 불리함은 자원 제약의 약점이 있고 평판도가 낮아 자원 조달, 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는데서 찾을 수 있다(Burton and Rubanick, 2002). 또한 신생기업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는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불리함 때문에 새로운 환경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이는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린다(Freeman et al. 1983; Stearns et al., 1995; Shepherd, 1999; Bradley and Rubach 1999). 또한 Born Global 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의 불리함에 직면하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자본조달비용, 노동력의 조달, 정부와의 관계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Aldrich and Auster 1986). Honjo(2000)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데 에서 오는 불리함은 신생시장에서 사업실패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국제화 시에는 이러한 불리함과 자원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는데 많은 연구들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벤처기업의 국제화시 직면하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로 지적한다(Sadler and Chetty. 2000; Zahra, Matherne. and Carleton. 2003; 배준우. 배종태. 2003).

이러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벤처기업이 신생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합당성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즉, 네트워크 파트너의 자원과 평판에 힘입어 인지된 위험성을 줄여 합당성을 높이며 이는 또한 다른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자원 획득에도 도움이 된다(Zimmerman. M. and Zeitz. G. 2002; Hoang and Antoncie, 2003).

Zeng and Lup(2002)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네트워크전략으로서 현지정부와의 네트워크(networking with government)과 현지기업과의 네트워크(networking with local firms)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지정부나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관계개발을 위한 시간적 투자와 노력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가설 2>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보유 정도는 기업의 해외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주식소유정도(Stock Share)

Claessens(1997), Weis and Nikitin (1998) 는 체코에서 집중화된 소유권과 주식(stock market prices)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Xu and Wang(1997)의 연구도 역시 중국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다.

Claessen et al.(1999)는 가족회사(family firm)는 비가족회사(nonfamily firms)보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소유권의 집중이 강화될수록 회사의 이익이나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Anderson and Reeb(2003)는 가족회사는 비가족회사보다 성과가 좋으며, 가족이 CEO로서 근무할 경우는 외부영입의 CEO보다 더 많은 성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가족회사(family ownership)는 효과적인 조직 형태라는 것을 강조한다.

Irena Grosfeld(2009)는 Warsaw Stock Exchange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 소유권 구조와 회사 가치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소유권 집중이 높은 상속된 회사가 분산된 소유권의 회사보다 많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3> 기업의 소유권이 높을수록 기업의 해외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창업자의 해외 지향성

기업의 국제화 활동에서 최고경영진들의 비즈니스 수행에 대한 역량에서 해외경험에 의한 언어습득, 국가 간 네트워크 접근 능력, 해외기업과의 협력관계 등 최고경영진들의 해외경험 정도는 기업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홍성태 외 3인(2004)은 기업의 해외 진출 영향요인 및 곤란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CEO의 해외지향성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Martine & Dave(2006)는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와 UK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에서 최고경영진의 높은 해외경험은 기업의 국제화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신생기업의 국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기업의 창업자를 언급하며(Green and Brown, 1997; 이장우 외, 2002), 신생기업은 주로 기업을 일으킨 창업자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창업자의 비중이 크므로, 창업자의 특성이 그 기업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고 하였다(Shane and Venkataraman, 2000).

따라서 최고경영진의 해외 경험이 풍부할수록 해외 활동이 활발할 것이며, 이는 해외매출액 비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자의 해외지향성은 기업의 해외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기업의 크기

기업의 크기는 기업의 해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Merchant and Schendel, 2000; Moeller et al., 2004; 변진호·안소립, 2007).

Merchant and Schendel(2000) 기업의 크기들이 합작투자 부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Schwert(2000)은 인수 후 기업의 가치에 입찰자의 크기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변진호·안소립(2007)은 합병 인수기업의 규모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소규모 합병기업의 6.53%로 대규모 합병기업의 0.84%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인수기업은 합병공시로 인하여 초과수익률의 효과가 나타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초과수익률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Meschi and Metais (2006)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된 기업의 상대적 크기를 조절변수로 알아보았으며, Schwert (2000) and Moller et al. (2004)는 인수합병 시 기업의 크기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기업의 크기가 클수록 투자자들은 기업의 해외활동에 더 안정감을 느끼며 이는 결국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기업의 크기는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전자무역 활용의 조절효과

Tiger et al.(2003)은 기업의 해외진출모형에서 기존에 단계적 형태를 띄지 아니하고 해외복수시장 진출의 원인을 기업의 프로세스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Gabrielsson & Kirpalani(2004)는 Born Global 기업들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국제화를 실현시킨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러한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과 시스템 통합, 본 글로벌 제품·서비스를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분배, 네트워크, 인터넷을 그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오가영·박종삼(2008)은 최고경영진의 혁신성향, 해외시장의 성장, 거래기업과 의사교환 등 해외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전자무역의 전략적 활용 변수를 매개변수로 활용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규모의 불리함이나 해외 기존 거래처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Born Global 기업의 경우 IT 기술을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에서 활용한다면 그 변수들의 설명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가설 5> IT 기술의 활용은 영향요인과 매출액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IV.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분석된 기업들은 앞서 설명된 본글로벌 기업의 정의에 기반을 두고 1990년대에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대상 기업의 업종은 IT 기업과 같이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 외에도 제조업 기업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대상 기업의 크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원 수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100명 이하의 기업이 27.8% 200명 이하 기업은 3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명 이상인 기업도 20.3%로 나타났다.

기업의 설립 이후 해외활동(수출, 수입, 라이선스, 해외법인 설립 등)이 시작한 년도는 설립과 동시에 해외활동을 시작한 기업이 19개 기업 중에서 11개 기업, 1년 이내 시작한 기업도 14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내 시작한 기업은 13개 기업, 5년 이내 기업은 9개 기업, 6년 이내 기업은 4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orn Global 기업은 설립 후 6~7년 이내 설립한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매출액에서 해외매출액 차지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의 매출액에서 9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 15%, 80%를 차지하는 기업은 13%로, 70%를 차지하는 기업은 10%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기업의 해외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내부요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상관관계

	주식	최고경영진	해외매출액	IT	네트워크	연구개발
주식	1.000					
최고경영진	.024	1.000				
해외매출액	-.022	-.021	1.000			
IT	.268	.020	.238	1.000		
네트워크	.225	.114	.182	.138	1.000	
연구개발	.262	.240	.291	.286	.277	1.00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그 결과 기업의 매출액과 네트워크변수간의 상관관계가 .687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각 변수들 간의 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을 의심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과 네트워크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이는 후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VIF를 통하여 재검토한다.

3. 가설의 검증

1) 가설검증

해외매출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각 변수와 해외매출액 사이에서 전자무역의 활용여부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상관관계분석에서 매출액과 해외네트워크 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687)를 보였기 때문에 VIF를 통하여 재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VIF는 1.508로 이는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기업의 연구비용 비중이 높을수록 이는 해외매출액 비중이 높게 나타날거라는 가설 1은 t-value가 4.262로 p-value는 .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연구비용이 높으면 기업의 국제화활동도 같이 높게 나타날 거라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국제화 활동 및 과정을 연구한 기존문헌은 기업의 국제화는 일정단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운송수단의 발달은 세계를 단일화시켰으며 또한 공급과 수요가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국내시장이나 단일화된 시장에서는 수익구조를 창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외활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높을수록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외활동이 활발할 것이며 이는 곧 기업의 해외매출액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최고경영진의 해외경험이 풍부할수록 기업의 해외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가설 2는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최고경영진 해외 경험 정도는 기업의 해외매출액의 비중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연구와 다르게 그 값이 부정적 영향을 보이면서 최고경영진의 해외경험의 정도에 따른 영향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진의 해외경험 정도를 해외교육과 해외근무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역량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크기가 클수록 해외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가설 3은 긍정적인 영향은 있으나 그 값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진 못했다. 이는 기업이 클수록 해외 활동이 활발하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크기가 기업의 해외 활동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Born Global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크기와 해외매출액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풍부할수록 해외매출액비중이 높게 나타날 거”라는 가설 4는 t-value가 5.518로 p-value가 .000으로 가설4는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관련된 선행문헌(Zimmerman, M. and Zeitz, G. 2002; Hoang and Antoncie, 2003)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벤처기업이 신생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합당성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기내용을 요약하면 기업의 해외매출액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과 네트워크의 보유는 본 글로벌 기업의 해외활동에 결정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다.

<표 2> 해외매출액 비중의 기업내부 영향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해외매출액비중		
		t-value	Sig.	VIF
(상수)		-1.083	.282	
연구비용		4.262	.000	1.375
CEO		-.767	.446	1.025
기업의 크기		1.011	.315	1.110
네트워크		5.518	.000	1.508
주식보유		-.161	.873	1.203
R2		.561		
F 값		25.903		
N		79		

2) 전자상거래 활용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기업의 연구개발·최고경영진의 해외경험정도·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이상 3가지 결정요인과 기업의 해외매출액 비중과의 관계에서,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에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활용유무에 따라 각 모델별의 설명력이 달라지는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moderat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첫째, 최고경영진의 해외경험정도와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모델의 R2은 0.20에서 0.21로 차이가 있었으나, 각 모델들의 t-value값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연구개발 정도와 해외매출액 사이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업무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은 혁신(innovation)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을수록 정보기술의 활용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다.

<표 3> 전자상거래 활용유무에 따른 기업내부요인 조절효과

모형	독립변수	t	유의확률	R2
모형 1	(상수)	11.642	.000	.020
	최고경영진	-1.240	.219	
모형 2	(상수)	11.475	.000	.021
	최고경영진	-1.285	.203	
	최고경영진*더미	.372	.711	
모형 1	(상수)	-.617	.536	.398
	연구개발	7.140	.000	
모형 2	(상수)	-.617	.539	.401
	연구개발	6.960	.000	
	연구개발*더미	2.006	.000	
모형 1	(상수)	2.588	.012	.473
	네트워크	8.306	.000	
모형 2	(상수)	2.559	.012	.485
	네트워크	7.591	.000	
	네트워크 * 더미	2.031	.000	
모형1	(상수)	4.133	.000	.022
	주식보유	-.161	.873	
모형 2	(상수)	3.757	.000	.208
	주식보유	-.093	.926	
	주식보유 * 더미	1.554	.126	

따라서 정보기술 활용이 연구개발비중과 해외매출액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 탐구하였다 그 결과 각 모델들의 t-value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2의 값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활용은 모델의 설명력을 상승시켰으며, 이는 IT 활용은 기업의 연구개발 비중과 해외매출액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에서 IT를 활용하면 연구개발에 따른 해외매출액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

셋째, 기업의 네트워크 정도는 전자상거래 활용기업과 미활용 기업에 따라서 R2이 .473에서 .485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와 더미변수를 교합한 변수의 t-value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값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기업의 업무 과정에서 정보기술을 활용 시 해외매출액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기업의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해외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서 IT 기술 활용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 모델의 R2의 값은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t-value를 보여줌으로써 IT 활용은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국제화가 단일시장에서 시작하여 평가 후 수정을 거쳐 또 다른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점진적 국제화논리는 현재 급변하는 환경과 연구개발의 비중의 확대와 같은 원인으로 기업이 처음부터 복수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를 보인다. 여러 영향요인이 있으나 Tiger et

al.(2003)은 이러한 기업의 복수시장 진출이 인터넷의 활용에서 그 원인을 찾았으며 Gabrielsson & Kirpalani(2004)는 Born Global 기업들의 신속한 국제화요인을 다국적 기업과 시스템 통합, 본 글로벌 제품·서비스를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분배, 네트워크, 인터넷을 그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활용 기업과 미활용 기업은 기업의 해외매출액 비중과 기업 내부요인사이에 설명력을 가질 거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IT 활용 정도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비중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변수의 설명력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기업의 국제화 과정이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Born Global 기업의 기업 특성요인을 파악하고자 KOSDAQ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Born Global 기업의 정의에 기반을 두고 기업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관련된 선행문헌을 토대로 “회사 제품에 관계없이 1990년대 출현한 기업으로 그들의 모든 해외 국제화 활동(수출, 라이선스, 해외직접투자, 수입 등)이 설립 후 3년 이내 시작된 기업으로 이러한 국제화 활동이 매출액에서 8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Born Global기업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에서는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액의 차지비율과 지식기반 산업에 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업종 구별 없이 접근하였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그동안 혁신으로 간주되고 있는 IT 활용이 기업의 해외매출액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Born Global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요인이 해외매출액 비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IT활용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특성 중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요인이 해외매출액에 영향 변수로 검증되었으며, IT 활용의 조절효과결과도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변수의 설명력에서도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강화와 연구개발의 강화는 기업의 해외매출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또한 상기 두 변수의 영향력은 기업의 프로세스에서 IT 활용에 따라 그 설명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국제화가 단일시장에서 시작하여 평가 후 수정을 거쳐 또 다른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점진적 국제화논리는 현재 급변하는 환경과 연구개발의 비중의 확대와 같은 원인으로 기

업이 처음부터 복수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Born Global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따라 기업의 어떠한 특성을 강화하여야 하는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Born Global 기업의 특성요인과 IT 활용의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써 탐색적 모델을 제시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Born Global 기업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동안 지식기반 산업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온 Born Global 기업에 대한 연구를 업종을 확대시켜 연구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Born Global 기업에 대한 접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Born Global 기업과 Born Global 이 아닌 기업의 내부화 요인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또한 내부요인이 아닌 외부요인도 동시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형준·정덕화(2007), "본글로벌(born global) 전략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마케팅과학연구*, 한국마케팅과학회, 제17권, 39-59.
- 배준우·배종태(2003), "우리나라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국제화과정과 전략", *벤처경영연구*, 중소기업학회 제6권, 제1호, 41-72.
- 오가영·박종삼(2008), "기업의 수출성과의 영향요인에 따른 전자무역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8권, 제1호, 203-221.
- 이장우·최명신·사무엘츄(2002), "벤처기업의 국제화:해외시장 진입 전략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31권, 제4호, 1135-1162.
- 조영곤·권재현·권기환(2007), "기술 기반 벤처의 국제화 동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11권, 제1호, 175-194.
- 지용희·김정포(2005), "한국벤처기업의 국제화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서강경영논총*, 제16권, 제2호, 349-365.
- 홍성태·전종근·이동일·김정욱(2004), "전자상거래 벤처 기업의 해외진출 결정요인-필요성과 곤란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4호,
- Bloodgood, J.M., Sapienza, H., & Almeida, J.G.(1996),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ew high-potential U.S. ventures: Antecedents and outcom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Summer, 61-76.
- Aldrich, H.A. and Auster, R.(1986), "Even dwarfs started small: Liabilities of age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 Behavior*, 8, 165-198.

- Anderson, R.S.M and Reeb, D.(2003), "Founding family ownership and the agency cost of deb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8, forthcoming.
- Andersson, S. and Evangelista, F.(2006) The entrepreneur in the born global firm in Australia and Swede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3(4), 642 - 659.
- Bradley, III. D.B. and Rubach, M.J.(1999), "Small business bankruptcies: A comparison of causes from 1981 and 1995",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 Bruton G.D. and Rubanik Y.(2002), "'Resources of the Firm, Russian high-technology Startups, and Firm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 553-576.
- Chetty, S. and Campbell-Hunt, C.(2004), "A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ization: A Traditional Versus a 'Born-Global'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2(1), 57-81.
- Claessens, S.(1997), "Corporate Governance and Equity Prices: Evidence from the Czech and Slovak Republics", *Journal of Finance*, 52(4), 1641-1658.
- Claessens, Stijn, Simeon Djankov, and Larry H.P. Lang.(1999) "Who Controls East Asian Corpora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54. World Bank, Financial Sector Practice Department, Washington, D.C.
- Cohen, W.M and Levinthal, D.A.(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128-152.
- Dean A. Shepherd, D.A.(1999), "Venture Capitalists' Assessment of New Venture Survival ", *Management Science*, 45(5), 621-632.
- Freeman, J., Carroll, G. R., & Hannan, M. T.(1983). The liability of newness: Age dependence in organizational death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692-710
- Gabrielsson, M. and V.H. Manek Kirpalani(2004), "Born Globals: How to Reach New Business Space Rapidly",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3(5), 555-571.
- Greene, P. G., & Brown, T. E.(1997). Resource needs and the dynamic capitalism typolog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3), 161 - 173.
- Grosfeld, I.(2009), "Large shareholders and firm value: Are high-tech firms different?", *Economic Systems*, 33(3), September, 259-277.
- Hedlund, G. and Kverneland, A.(1985) *Are strategies for foreign markets changing?* The case of Swedish investment in Japan.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1(15), 41-59.
- Hoang, Ha & Antoncic, Bostjan,(2003). "Network-based research in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165-187.

- Honjo, Y.(2000), "Business failure of new firm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a multiplicative hazard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18), 557-574.
- Jan Johanson and Jan Erick Vahlne(1997), "The International process of the firm: 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commi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8(1),
- Knight G.A. and Cavusgil, S.T.(1996), "The Born Global firm: a challenge to traditional internationalization theory", *Advances in International Marketing*, 8, 11-26.
- Knight,G.A and Cavusgil, S.T.(2004), "Innovatio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the born-global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5, 124-141.
- Kodama,F.,(1992), "Technology fusion and the new R&D", *Harvard Business Review*, Vo. July-August, 70-78.
- Kogut,B., and Chang, S.(1991),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73, 401-413.
- Korbin,S.J.(1991),"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global integr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 17-31.
- Laanti, R., Gabrielsson, M. and Gabrielsson, P.(2007),"The globalization strategies of business-to-business born global firms in the wireless technology industry",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6, 1104-1117.
- Madsen, T.K., & Servais,P.(1997),"The internationalisation of born globals:An evolutionary proces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6, 561-583.
- Martine, S. and Dave, C.(2006),"A Comparative investigation in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nadian and UK high-tech SME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23(5),
- Moen Ø, (2002), "The born globals-a new generation of small European exporter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9, 156-175.
- Oviatt, B.M., & McDougall, P.P.(1994),"Toward a theory of international new ven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 45-64.
- Rasmussen, E., Madsen, T., & Evangelista, F.(2001),"The founding of the born global company in Denmark and Australia: Sensemaking and networking",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13(3), 75-107.
- Rennie, M.W.(1993), "Global Competitiveness: Born Global", *The McKinsey Quarterly*, 4, 45-52.
- S.A. Zahra, B.P. Matherne, J.M. Carleton(2003), "Technology resource leveraging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ew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1, 163 - 186.

- Sadler, A. and Chetty, S.(2000),"The impact of networks on New Zealand Firms in Leo Paul Dana(ed.)", *Global Marketing Co-operation and Network*, NY:IBP.
- Shane, K. and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rader, R.C., (2001). Collaboration and performance in foreign markets: the case of young high-technology manufacturing firms. *Academy Management Journal*. 44, 45-60.
- Tiger Li, John A.F.Nicholls and Sydeny(2003),"Organization motivation and the global concurrent launch postponemen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2,
- Timothy M. Stearns, Nancy M. Carter and Paul D. Reynolds, Mary L. Williams(1995), "New firm survival: Industry, strategy, and lo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1), January, 23-42
- Vernon, Raymond(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0-207.
- Weis,A and Nikitin, G,(1998), "*Performance of Czech Companies by Ownership Structure*", University of Michigan: William Davidson Institute, The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186, June.
- Xu, X. and Wang, Y,(1997), "*Ownership Structure,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Case of Chinese Stock Companies*", World Bank Working Paper 1794, World Bank, June.
- Zahra, S.A., Ireland, D.R., & Hitt, M.A.(2000), "International expansion by new venture firms: International diversity, mode of market entry, technological learning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925-950.
- Zeng, K. and Lup, E.X.(2002), "Foreign Firms network-base strategy in China's Transition Economy", Proceedings in AIB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Regional Conference, Shanghai, China, July,15-17, 18-20.
- Zimmerman. M. and Zeitz. G.(2002), "Beyond survival: achieving new venture growth by building legitimac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5, 414-431.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Activities: The case of Born-Globals in Korea

Min-Ho KIM* · Jung-Soon KIM** · Tae-Young KIM**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the born-global firms listed in KOSDAQ. In this study, Born Global firm is classified by the firms which have export ratio over 70%, and initiated export activities at least three years from inception. In this study, the various industrial sectors are expanded for exploring the comprehensive approaches, which could suggest an abundance of implication for born-global firms.

Our results show that the R&D and Network have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s on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Moreover an e-commerce in the business process, has a moderate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Network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Key word : Born-globals, international activities, IT moderate effect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Trade, Professor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Trade, Lecture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Trade, Doctoral candidate